# 파리재앙과 플랜맨

## (출8:20~32)

2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1.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 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 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22.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23.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24.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파리재앙과 플랜맨> 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파리재앙과 플랜맨'
플랜맨(Plan Man)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사는 남자인 계획남이 되겠지요.
'플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2년 전인지 1년 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영화를 관람한 것은 아니지만 제목이 재미있어서 그 내용을 소개하는 글을 봤는데, 말씀을 들으시면 안 봤어도 보신 것 같으실 것입니다.
이 플랜맨을 달리 표현하면 '1분 1초 나노 플랜남'입니다.
'나노'라는 것은 10억 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굉장히 미세한 것을 상징하는 단어로 어떤 일도 계획 없이 하는 적이 없고, 다음 일에 대해서 알람을 다 맞춰놓아서 알람에 따라서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6시에 알람이 울리면 기상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밤새 흐트러진 침구를 다림질하고 정돈합니다. 6시 35분에는 샤워를 하고 드라이기로 욕실의 물기를 다 제거하는 결벽증까지 있습니다. 8시에는 옷을 입습니다. 8시 반에는 출근을 하고, 8시 42분에는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이 주인공은 예측불가능하고 무질서하고 세균 투성이인 이 세상에서 모든 일에

알람을 맞추고 계획대로 살면서 삶의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데 계획에 없던 일이 하나 터지고 맙니다. 한 여자를 발견하는데 자기와 똑같이 계획대로만 삽니다. 그 여자를 짝사랑하다가 사랑의 고백도 계획대로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짝사랑의 대상이었던 계획녀는 주인공을 거절하게 되면서 실의에 빠져있는데 계획녀의 후배였던 아가씨가 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사랑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나서는 소정이라는 인물로 무계획적인 삶의 대명사격인 사람입니다. 즉흥적이고 깨끗하지 않고 통통 튀는 그런 성격의 아가씨인데, 주인공 남자를 도와서 사랑을 쟁취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주인공을 무계획한 삶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이 계획남, 정석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은 소정이라는 여자를 만난 뒤로 8년 7개월 26일 만에 처음으로 회사를 지각하기도 하고, 소정이라는 여자를 알게 된지 37시간 13분 만에 평생에 처음 듣는 황당한 제안을 받게 되어 밴드 오디션에 참가하게도 되고 밴드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노래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정은 정석이라는 계획남을 무계획한 삶으로 빠뜨리는 가운데 서로의 사랑이 싹트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소정이는 즉흥적이고 무계획하고 통통 튀는 여자로 인생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에 없던 여행이 더욱 신나는 법이고, 계획에 없던 이벤트가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에 의외성이 없다면 인생은 무미건조해 집니다. 유쾌한 우연(偶然)이 있어야 신바람이 납니다. 전혀 계획하지 않은 남자친구와의 저녁식사가 너무나 좋을 수도 있는 것에 비해, 몇 개월 전부터 계획했던 식사가 싸움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획 없는 삶의 신남과 유쾌함은 매력적입니다만, 인생을 그렇게 끝없이 무계획하게 살 수 없는 것은 불안하고 두렵고 인생이 꼭 loser가 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인생에서 계획성과 무계획성이 잘 조화되는 삶을 살 수 있고, 무계획성의 유쾌함과 계획성의 정확함과 치밀함이 함께 어우러진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에덴에서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나는 계획을 세우지 않지만 내 삶을 위한 계획은 있어요. 계획 있는 삶을 계획 없이 사는 것이 바로 에덴의 삶이었습니다. 내 삶을 위한 계획이 내게는 없지만 내 삶을 위한 계획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해서 세우신 계획은 치밀하고 완벽하고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만 세워놓으셨는데, 그 삶의 계획의 내용들이 나의 입장에서는 다 우연이고 계획 없이 맞닥뜨리게 되고, 나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주어지고, 되는 일들이 다 천지를 지으시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내게서 일어나는 것이니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저주 속에 파묻혀 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자 저주의 한 측면으로,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저주의 삶이 되었습니다.
영화 제목에 플랜맨으로 나오는데, 원래 인간은 매 순간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만 받아들이는 자로 스스로를 국한하면 하나님께서 판단만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플래맨이 되면 안 되고, 러브맨(Love Man)이 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늘러브맨입니다. 플랜맨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지상의 나의 삶에 대해서는 플랜갓(Plan GOD)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지금 엄청난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모세는 플랜맨이 아닌 매 순간마다 자기의 판단을 죽이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하늘 러브맨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계획은 플랜갓이 가지고 계십니다.
지상플랜갓, 하늘플랜맨 이것이 완벽한 조화였는데 지상에 대해서 플랜맨이 된 것이 저주이고 재앙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넷째 재앙인 파리재앙의 이야기도 같은 관점에서 봅니다.
이미 바로와 애굽은 영적인 의미에서 아담으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재앙의 국면이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단지 영적인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데도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재앙을 당하고, 저주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재앙이고 저주인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민들과의 관계에서 단순히 바로를 꺾어서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선민들에게 기적적인 역사로 재앙을 일으키시며 당신 자신을 전능하신 분이자 그들을 선택하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시고, 동시에 선민들의 삶은 어떠한 내용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드러나는 저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점을 두고 파리재앙의 내용을 봅니다.

파리는 히브리어로 '아로브'라는 단어인데 '아라브'라는 단어에서 나왔고 '아라브'는 혼합물을 뜻하는 '섞는다. 혼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옛날에 혼합물이 어떤 종류가 있었을까요?
요즘은 합성섬유도 있고 비빔밥처럼 섞는 음식도 있습니다만, 그 옛날에 파리와 연관된 혼합물은 쓰레기 더미의 더러움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한 가지가 모여 있으면 더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물이라도 한 가지만 모여 있으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오물이 내 옷에 닿아서 혼합되면 더러워집니다. 즉, 혼합물이라는 단어에서 파리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쓰레기 더미와 썩어가는 부패물이 모여 있는 곳에는 늘 파리가 생기고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파리를 '개 파리(dog fly)라고 합니다. 2013년의 기사를 살펴보면 개 파리는 금방 죽은 시체에는 앉지도 않고, 썩어가는 시체를 좋아해서 그 시체에만 앉는다고 하는데, 이 파리가 한 때 멸종했다가 160년 만에 유럽에서 등장해서 이탈리아에서 발견된 치즈파리와 함께 악마적이고 엽기적인 10대 곤충에 속하는 파리가 이 개 파리입니다.

특히 썩어가는 인간의 시체를 좋아해서 시체의 근육과 인대와 뼈를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개 파리가 떼를 이루어서 바로의 집을 가득 메우고 신하의 집과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득했지만, 선민이 사는 고센 땅엔 파리 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파리가 나타나는 상황은, 사람이 사는 사람 현장 가운데에 시체가 혼합되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담에 의해서 주어진 재앙 가운데에서 사는데, 자기 삶 가운데에 시체를 두고 살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개 파리 떼가 득실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깨닫지 못하므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차원의 개 파리 떼가 나타나게 하셔서 그 재앙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선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계시는데, 스스로 있는 자인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에 이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체와 썩음과 부패와 불결함이 영적인 의미에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시체든지 동물의 사체든지 식물의 잔해든지 이 땅과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삼라만상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을 더 이상 흘려보내지 않는 자리가 시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자들입니다.

바로와 애굽이 영적인 의미에서 시체를 삶의 한 가운데에 두고 있음으로 인해서 개 파리 떼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흘러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계획을 세운 사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체라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자면 개 파리 떼가 알을 까고 구더기가 생기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흘러들어오지 않는 것이 시체이고,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 가운데에 들어온 것이 불결이고 더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인간이 자기의 삶을 통치하려고 벌려놓은 일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책장에 김치를 가져다 놓는 것과 똑같이 불결하고 더럽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들어오지 않는 일이 내 삶에 존재하고, 내가 계획하고 시도하고 추진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계획의 흐름이

단절되고, 나로부터 계획되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시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사업,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세운 자식의 계획, 여러분의 노년에 대한 계획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다 시체를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의정부에서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을 죽여서 집에 있는 플라스틱 통에 집어넣고, 또 자기 애인이었던 외국인 근로자를 죽여서 통에 넣어서 몇 년을 집안에 보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끔찍하고 엽기적인 일이 이 지구에서 사는 거의 모든 사람의 삶에서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어진 일이 흘러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플랜맨이 되어서 이루는 모든 일들은 다 시체이고, 썩어가는 시체를 끌어안고 살고 있는 죽음과 삶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파리재앙의 메시지입니다.
파리는 죽음과 더러움에서 생기는데, 죽음과 더러움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은 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 삶에 파리가 생겼다는 것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시체를 끌어안고 살고 있고 더러움 속에서 뒤범벅이 되어 살고 있는 재앙의 상태를 지금 우리와 선민들에게 가르쳐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고센 땅에서 살고 있는 자들은 선민들입니다.
선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개 파리 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플랜맨이 없다는 것이고, 선민 중에서는 플랜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을 향한 플랜갓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플랜맨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담의 저주 속에 묻혀 살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성향이 플랜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계획에 의해서 벌어진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들어오지 않는 시체이고, 시체를 만지고 있는 것이고, 시체와 함께 있고, 썩어가는 시체를 껴안고 자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내가 사업을 생각했다면 밤새 시체를 껴안고 있었던 것이고, 이 성향이 바로 유전 죄입니다.
자꾸만 미래를 내다보며 내 인생은 어때야 한다고 플랜을 세우는데,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고 죽으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동선을 따라서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대해서 플랜을 세우려는 성향을 띄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영화의 부제가 '나노 플랜남, 나노 계획남'이었습니다.
미세한 시간까지 계획을 세워서 움직입니다. 우리는 미세한 시간까지 쪼개서 '나노 하늘러브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1분 1초까지 하늘에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지상플랜갓이

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관계하시게 됩니다. 나는 이 세상을 매 순간마다 계획대로 살거나 계획을 세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이 땅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늘러브맨으로 살면, 이 땅의 일은 내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우연으로 치밀하신 하나님의 나노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가기 때문에 범사가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계획한 바가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러브맨의 삶과 지상플랜갓에 대한 신앙을 표현할 때에, 자기 몸에 말뚝이 박혔다고 표현할 만큼의 고질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범사는 지상플랜갓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고 적절하고 아름다운 모든 일들이 내게는 유쾌한 우연으로 주어져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재앙이 없어진 삶입니다.
내가 아직도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와, 노년의 일을 계획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면 파리 재앙의 역사로 하나님의 계획의 흐름이 멈춘 시체와 더불어 사는 삶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플랜맨! 그 이름 자체가 저주이고 재앙입니다.
오직 이 지상에 대해서는 플랜갓만 있을 뿐이고,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늘을 향한 러브맨으로만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로 나노 하늘러브맨이 되게 해주심으로 지상을 향한 나노 플랜갓이신 우리 아버지의 계획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와 성취되어지는 유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